

##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삼상 16:1-7

한국에서 영어 학원 원장을 하던 ‘로버트 아놀드’(Robert Arnold)라는 미국인이 한국은 성형수술 공화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남이요 아내도 아리다운 여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의 모습이 영 아닌 겁니다. 아빠도 잘생겼고 엄마도 미인인데 딸은 어디서 그런 모양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나 혼자 만들었냐, 씨가 문제지 하다가 결국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인이 성형수술로 얼굴을 다 뜯어 고친 성형미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이 알려질까 봐 옛날 사진까지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친정 엄마였습니다. 외손녀를 보니까 제 엄마 어릴 때 얼굴을 빼다 박았더랍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로 외모를 뜯어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즈음 천국과 지옥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지옥은 리모델링을 하고 천국은 검색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옥은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를 얼마나 좋아 하는지 불가마 사우나, 불가마 찜질 방 같은. 그래서 지옥에 와서도 ‘아 시원하다’ 하고 좋아 한다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하도 단련을 해가지고 와서 여간 뜨거워가지고는 끄떡도 안한답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검색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다 성형수술을 하고 오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람의 원형을 탐색하는 검색대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이지만 사실 세상은 이렇게 외모를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은 외모를 좋아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아름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7 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는 잠깐입니다. 1980/1990 년대 세계 모든 남성의 흠모의 대상이라고 하였던 미국 팝 가수 마돈나도 잠깐이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아름다운 배우들도 지금 다 늙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평등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50 대가 되면 인물이 평등해 진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평평해지고 여기저기 울룩불룩 하답니다. 60 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그게 그것입니다. 70 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옵니다. 다 똑같이 병든 건지 건강한 건지 다 아프고 힘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80 대가 되면 생명의 평등이 옵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비슷하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 평등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러 가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잠깐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외모 때문에 낙심 하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내 겉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합니다. 내 겉모습은 늙고 초라해 지지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으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면서 택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얼짱이니, 몸짱이니 하며 외모에 많이 치중합니다. 얼굴을 가꾸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하고,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 다이어트와 건강식품과 각종 투약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형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고 반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즈음 말로 하면 그들이 얼짱이요 몸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서 단장 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이 무엇을 단장 했겠습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다윗은 인물도 별로였습니다. 작은 키에 붉게 그을린 피부, 곱술 머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면 다 들어 납니다.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몸에 뭐를 지니고 가는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검색대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중심은 정직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합격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사울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겁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1 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 받는 것은 비극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께 버림 받으니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누웠으나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온갖 진수성찬이 매끼마다 기다리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풍성히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받자 깨끗이 시인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닙니다. 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속죄양으로 희생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고 진실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믿음과 진실한 삶, 그리고 검소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정직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다윗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이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이긴 한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울과 다윗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육적인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고 신앙고백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납니까?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이긴 해도 나는 항상 부족하도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도 단장해야 하지만 먼저 심령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과 영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